제 8호 2012 봄
College of Humanities Newsletter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2년 4월 17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인** 윤일환
디자인/제작 비온후(051-645-4115 / beohgo@naver.com)

학사 일정

3.2(금)	개강
3.12(월)—16(금)	학위청구자격시험
4.9(월)	2011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4.16(월)—20(금)	중간고사
5.15(일)	개교[66주년]기념일
5.18(금)—22(화)	여름계절수업 수강신청
6.15(금)—21(목)	기말고사
6.18(월)—7.13(금)	2011학년도 2학기 교수계획표 입력
6.22(금)	하기휴가, 여름계절수업 시작
6.22(금)—28(목)	1학기 성적입력

취임인사를 겸하여

인문학이라 하면 대개 '문·사·철'이라는 말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이는 문학과 역사, 철학이 인문학의 삼위일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문학과 역사, 철학에 두루 통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53년 9월 15일에 인문대학의 전신인 문리과대학이 설치될 당시에도 그 출발은 국문, 영문, 사학, 철학이었다. 1981년 3월 1일에 문리과대학이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되고, 일부 학과가 사회과학대학으로 이전되는 한편 독문, 불문, 중문, 일문, 한문, 고고, 언어, 노문 등이 잇달아 신설되면서 인문대학은 12개학과를 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어학 분야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학과 어학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해 온 동아시아의 학문적 전통에서 볼 때 문·사·철 위주의 인문대학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세 이전에도 그러했다. 유일무이한 국립대학격인 성균관의 교과과정 역시 문사철 위주였고, 대부분의 문인들은 문학가인 동시에 역사가였고 사상가였다. 문인들의 인물평에는 예외 없이 박학다식이라는 말이 쓰였으며, 문무겸전(文武兼全)이 탁월한 인물의 표징처럼 여겨지곤 했다. 다산 정약용만 하더라도 문학과 역사, 철학은 물론 의학과 법학, 행정학, 문자학에도 능통했고, 수원화성 축조시 거중기를 설계하여 사용하게 할 정도로 공학에도 뛰어났다. 동양만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 실학이 꽃피던 시기인 18세기에 유럽사회에 풍미했던 계몽주의 역시 이른바 백과전서파에 의해 주도되었을 정도로, 서양에서도 통합적 학문이 대세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최근 학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는 학문 상호간의 '통섭'과 '통합'은 학문의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에 의해 상실된 균형감각의 회복운동인 동시에, 전인적 인간으로의 본능적 회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대는 이미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인 때문으로 근세 이전의 지식인들처럼 다방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통섭'과 '통합'은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서 두루 통달한다는 의미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고 조언함으로써 발상의 대전환을 이룸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꾀하려는 모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학문 간의 통섭 내지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통섭의 주체인 연구자 모두가 자신의 학문세계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학문영역의 가치와 접근 방식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유아독존적 사고로는 결코 학문 상호간의 통섭 내지 통합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시대를 뛰어넘는 창조적 사유를 해낼 수 없다. 세계관과 방법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태도로는 '문인상경'(文人相輕: 문인들은 서로를 깔본다)과 '재승박덕'(才勝薄德: 재주는 좋으나 덕이 없다)이라는 동양 고유의 비판적 지식인상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 인문학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인문정신의 발현을 적극 고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인문대학은 2012년 3월 1일로 문리과대학에서 분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립(而立)의 연륜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합당한 것이 곧 상호존중의 전제 아래 통섭을 지향하는 새로운 인문정신일 듯하다. 이 새로운 인문정신의 기치 아래 교직원, 학생, 동문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새로 맞이하는 30년은 도약의 한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진년 봄에 새벽벌 독수리의 힘찬 비상을 꿈꾸어 본다.

Contents

02 인문대 소식 03 미리내 단상 04 학과/연구소 소식 06 동문 소식 07 교수동정/신간소개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경암체육관에서 열려 학사 3483명, 석사 1500명, 박사 213명이 배출되었다. 인문대학에서는 학사 253명, 석사 57명, 박사 14명 등 총 321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학사보고, 총장 학위수여식사, 총동문회장 축사, 학위기와 표창장 수여, 축하연주, 교가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단과대학 수석졸업자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되었는데, 인문대학에서는 김진아(영어영문학과)양이 수석을, 박시현(일어일문학과)양이 차석을 차지했다. 학위수여식에서 김기섭 총장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졸업생들에게, "효원인의 긍지와 사명감으로 쉼 없이 도전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1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201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2월 13일(월) 오후 1시 50분, 경암체육관에서 열렸다. 학사보고,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선서, 총장 입학식사, 총동문회장 축사, 교가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 본 행사 후, 입학축하 및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2부 행사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나의 진로설계(진로 및 취업 안내) 영상 상영 및 설명에 이어 2011년 MBC 대학가요제 본선에 진출한 부산대 「산30사운드」 팀의 공연, 비보이팀 「킬라몽키즈」와 부산대 한국음악학과 타악주자가 함께하는 특별공연 'B-Boy와 판굿'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펼쳐졌으며, 공연 후에는 학과별 등록 안내가 있었다. 김기섭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대학에서의 실력연마는 주체적 노력과 열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 면서, "확실한 목적의식과 효원인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두루 갖춘 지성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부언했다. 한편 2012학년도 신입생 최종등록 결과 4894명의 학부생이 입학했으며, 그 중 인문대학소속 학생은 441명이다.

부산대학교와 중국 상해교통대학의 교류 협정

부산대학교와 중국 상해교통대학은 4월 16일 양교 학술교류와 우의증진을 위한 교류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교는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의 교류' , '학술자료 및 학술지의 교류' , '공동 연구프로젝트의 기획과 학술회의 개최' , '기타 양교의 관심 있는 주제의 학술 교류'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생이 인문학분야에 대한 필수과정을 이수한 뒤 양교 교수 간 교육과정 교류를 통하여 학습의 교류를 성취하고 기타 양성과정 및 대학원생 교육과정의 공동 진행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념식수

인문대학 제16대 학장을 역임한 독어독문학과 김태성 교수가 인문대학 발전기금으로 인문관 및 교수연구동 주변에 소나무, 매화, 감나무, 능소화 등 8종 100여 그루를 심었다. 이번 식수로 인문관 주변에 테마길을 조성하였는데 인문관 좌측화단은 매화길, 우측화단은 감나무길, 인문관 뒷편은 소나무길로 만들었다.

인문대 학과장 명단

인문대의 12개 학과 가운데 9개 학과의 학과장이 교체되었다. 각 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총괄할 학과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어국문학과장 이재봉 교수(신임) / 중어중문학과장 서정희 교수(신임)
일어일문학과장 류민화 교수 / 영어영문학과장 박기성 교수(신임)
불어불문학과장 전광호 교수(신임) / 독어독문학과장 김태성 교수(신임)
노어노문학과장 최동규 교수 / 한문학과장 김승룡 교수(신임)
언어정보학과장 권연진 교수(신임) / 사학과장 곽차섭 교수(신임)
철학과장 손영삼 교수(신임) / 고고학과장 임상택 교수

2011학년도 인문대 전기 박사학위자(14명) 명단

- **김영주(국어국문학과)**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복합성 연구」 (지도교수: 임종찬)
- **두위(국어국문학과)**
「한국어 한자어 합성어와 중국어의 대조 연구」 (지도교수: 최규수)
- **손평효(국어국문학과)**
「공간말 '앞'과 '뒤'의 의미와 복합어 구성 연구」 (지도교수: 김일웅)
- **이남(국어국문학과)**
「한·중 방향성 이동동사 구성의 대조 연구」 (지도교수: 최규수)
- **김영옥(중어중문학과)**
「『海上花列傳』연구」 (지도교수: 서정희)
- **신영대(중어중문학과)**
「『周易』의應用易學硏究-象數易의術數文化現象을中心으로」 (지도교수: 김세환)
- **유철(중어중문학과)**
「现代汉语个体量词研究」 (지도교수: 강식진)
- **김선영(영어영문학과)**
「에드거 앨런 포의 일탈과 위반의 글쓰기」 (지도교수: 정진농)
- **배메리주옥(영어영문학과)**
「Syncretism and Its Implication in Bible Translation: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1876-1910」 (지도교수: 윤일환)
- **이희정(영어영문학과)**
「현대영어 도치구문에 관한 코퍼스기반 연구」 (지도교수: 안동환)
- **이선필(철학과)**
「플라톤의 행복주의: 새로운 윤리의 가능성」 (지도교수: 주광순)
- **히라고오리타쯔야(고고학과)**
「무덤資料로 본 南韓地域 靑銅器時代 社會 硏究」 (지도교수: 신경철)
- **이수홍(고고학과)**
「靑銅器時代 檢丹里類型의 考古學的 硏究」 (지도교수: 김두철)
- **호선희(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협동과정)**
「중국인학습자를위한한국어시제표현교육연구-과거시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선자)

동경(憧憬)과 향수(鄕愁)는 하나의 마음

인성기(독어독문학과)

대학 재학 시절 독문학을 전공하던 내게 독일은 너무나도 가고 싶은 나라였다. 독일문화원에서 나누어준 관광안내 포스터에서 본 독일의 도시와 풍경들은 환상적이었다. 그 후 실제로 유학을 하게 되자 이번에는 어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해외파견의 기회가 주어져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다. 도심의 화려한 쇼핑거리인 Zeil은 유럽의 명품 패션점들이 즐비하고 백화점이 몰려 있다. 국제적인 행사들이 열리는 초현대적인 컨벤션 고층건물들은 서울을 연상시킨다.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그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괴테의 생가와 관련된 것이다.

나는 그곳에 가면 한국의 고향과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오래된 낡은 고가구들의 나무 냄새와 묵직한 질감은 어린 시절 우리 집에 있던 장롱처럼 친근한 느낌을 준다. 또 어디선가 "괴테 엄마 방", "괴테 아빠 방" 하는 낯익은 소리가 들린다. 그곳을 지키는 독일인이 한국 관람객들을 향해 내던지는 말이다. 이번에 가보았더니, 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보다 그의 어휘가 많이 늘었다. "괴테 부자(富者)", "거실", "침대", "의자", "탁자" 등등. 가구들을 하나씩 손으로 가리키면서 한국어 명사들을 줄줄이 쏟아낸다. 그에게 한국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 동양은?

괴테 생가의 1층 부엌 벽면에는 낯선 기계장치가 하나 부착되어 있다. 부엌에서 직접 지하수를 퍼올릴 수 있게 만든 펌프시설이다. 괴테의 집은 그 아저씨의 말대로 "부자"였다. 그 의 집에는 두 명의 식모와 두 명의 하인들이 고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괴테는 훗날, 유년시절에 그 장치를 보면서 '땅 속 깊이 무한히 연결된 드넓은 세계'를 예감 했었다고 회고한다.

이 집의 3층에 올라가면 마루에 거대한 "벽시계 Hüsgen-Uhr"가 서 있다. 그것도 보통시계가 아니다. 현재의 시간뿐만 아니라 날짜, 밤하늘의 12개 성좌, 달의 변화주기(週期)까지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천문 시계다. 어린 괴테는 그 시계를 구경하기 위해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진 산수 과외공부 선생님 집에 자주 갔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시와 진실〉에서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시계"였다고 술회한다. 괴테는 이 시계를 보면서 우주의 드넓은 세계의 신비와 무한한 시간을 상상했을 것이다.

2층에는 평소에는 폐쇄되었다가 집안의 공식적 행사, 예를 들면 딸의 결혼식, 성탄절 모임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던 날에만 사용하던 "국무실 Staatszimmer" 즉 응접실이 있다. 천정에는 화려한 촛불 샹데리에가 걸려 있고 사방의 벽면에는 동양의 기와집 정자와 청나라 시대의 중국인 모습이 붓으로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 디자인 때문에 식구들은 이 방을 일명 "페이킹(北京)방"으로 불렀다고 한다. 그들도 동양의 이국적 문화를 동경한 모양이다. 괴테의 집은 전 세계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시 마인 강변의 작은 나루터 마을에 불과했을 이 도시의 단조로운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넓은 세계와 소통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집의 4층에는 인형극을 할 수 있는 낡은 미니어쳐 무대 상자가 놓여 있다. 괴테는 유년 시절에 자기 집 근처의 장터에서 보았던 유랑극단의 인형극에 감동받아서 직접 집에서 인형극 놀이를 했다고 술회하고 있는 데 이것이 그것인 모양이다. 괴테는 연극을 좋아했다. 그의 교양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도 보면 주인공 빌헬름이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고 유랑극단을 따라 편력을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여인들을 사귀게 되고 그 마지막에는 귀족의 딸과 결혼까지 하지만 그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교양의 완성을 위해 혼자서 또 다른 "편력"의 길을 떠난다.

괴테의 마음은 이 집안의 이국주의적 분위기가 말해주듯 평생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유목민처럼 떠돌았던 모양이다. 그의 무한한 동경심은 그가 노년에 쓴 〈서동(西東)시집 Westöstlicher Diwan〉에 잘 반영되어 있다. 동서양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노래한 이 시집에서 "은행나무 잎"이라는 시는 은행나무 잎의 둘로 갈라진 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동방에서 건너와 내 정원에 뿌리내린,
이 나뭇잎에는
비밀스런 의미가 담겨 있어
그 뜻을 아는 이들을 기쁘게 한다오.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둘로 나뉘어진
한 생명체인가,
아니면 둘로 나뉘어 있음을
우리가 하나로 알게 하기 위해 선택된 것일까.

이런 의문에 답을 찾다가
마침내 참뜻을 알게 되었나니,
그대는 내 노래에서 느끼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이며 둘임을.

"내가 하나이며 둘"이라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인간은 내면에 끝없이 분열을 느끼는 존재'라는 말일까?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와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듯하다. 고향에 있을 때는 먼 곳으로 떠나고 싶고, 먼 곳에 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을, 향수와 동경이 하나의 뿌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마음 작용임을. 그 어디에도 고향은 없고 그 어디에도 유토피아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순간이 내일의 그 어느 순간보다 더 좋은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필자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독문학(독일 드라마 & 오스트리아 문학) 전공

국어국문학과

2011학년도 국어국문학과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인문관 317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졸업식에는 2010년도 후기학사 및 석사졸업생 10명과 2011년도 전기학사 및 석사졸업생 27명을 비롯하여 학부모, 친척 등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모든 졸업생에게 학과장이 졸업장을 수여했고, 국어국문학과 08학번 손마정 졸업생이 국어국문학과 동문회장상을 수상했다.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학생 및 부.복수전공 학생 24명은 학과단위 학생 해외파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주간 상해화동사범대학에 다녀왔다. 2011년 12월 25일(일) 강식진, 류명희 교수의 인솔 하에 출국하여 1월 14일(토) 귀국하였다. 파견학생들은 중국어 연수 및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경험했으며, 이번 파견을 계기로 2012년 1월 9일(월) 우리대학은 화동사범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정규학기 프로그램으로 2월 11일(토) 학생 10명이 출발하여 2012년 6월 23일(토)까지 수학할 예정이다.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는 만남과 헤어짐의 시간인 봄을 맞이하여 2월 13일(월) 경암체육관에서 거행된 201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행사 후, 풋풋한 새내기들과 첫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시작으로 2월 14일(화) 신구대면식, 2월 24일(금)~25일(토)의 예비대 MT, 3월 16일(금) 새또맞이로 신입생 환영행사가 이어져 신입생들은 한층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다. 한편 2월 17일(금)의 졸업식에서는 25명의 일문과 졸업생이 사회 초년생으로 새 출발을 하였다.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의 「BK21영상산업 번역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은 2012년 1월 13일(금)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한 번역의 기술과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번역에 있어 필요한 문화이해력과 기술적인 교정·편집능력 그리고 구체적 변역실습 예들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동 사업단은 2012년 1월 27일(금)~2월 11일(토) 호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주관하여 호주 UNSW대학에서 영상번역관련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과 현지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2월 17일(금) 상남국제회관에서는 전공별 학위청구논문예비발표와 석, 박사 신입생환영회를 겸한 동학과대학원 동계세미나가 있었으며, 3월 24일(토)~25일(일)에는 학부 신입생환영회가 경주에서 열려 신입생들과 재학생, 교수들이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에서는 입학식 다음날인 2월 14일(화)에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과소개와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한 팁을 전달했다. 2월 16일(목)~17일(금) 1박2일간의 동학과 예비대학에서는 선배들과 신입생들이 함께 대학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3월 9일(금)에는 1학기 개강총회가 열렸으며, 3월 23일(금)~24일(토) 이틀간에는 신입생 및 복학생환영회가 있었다.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에서는 2월 3일(금)~2월 23일(목)까지 독일문화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독일어 원어민선생님을 초빙해 해외파견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 수업을 하였다. 수업을 통해 독일문화와 생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운 파견학생 10명은 3월에 독일 아헨대학으로 출국하였다. 2월 17일(금) 인문관 311호에서 학과장 축사로 시작된 동학과 졸업식에서는 19명의 졸업생중 12명이 참석하여 졸업장을 수여받고 한마디씩 소감발표를 한 후 교수들과 함께 단체사진 촬영을 하였다. 같은 날 학과 신입생을 위한 예비대 행사도 열렸는데, 몸짓배우기와 여러 게임을 통해 신입생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참석한 선배들은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했다.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에서는 2월 10일(금) 신구대면식을 통해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신입생들에게 여러 가지 대학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2월 14일(화)에 있었던 예비대학에서는 신입생들끼리 얼굴을 익히고 대학생활을 미리 경험했으며, 동학과 학생회는 신입생들을 위해 학교캠퍼스를 돌아보고 러시아어 알파벳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2월 17일(금)에는 학부와 대학원의 졸업식 및 사은회가 있었으며, 3월 9일(금)에는 개강총회가 열려 노어노문학과 전 재학생

들이 참석하여 개강을 축하하고 학과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문학과

한문학과는 매년 방학기간에 맞춰 대학원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2월 21일(화)~22일(수) 경남 통영·거제 일대를 답사하고 충무 마리나리조트에서 세미나를 열어 대학원 논문발표 및 학업계획서를 발표하였다. 2월 28일(화)~29일(수) 금정산성 오마이랜드에서는 신입생들을 위한 예비대학이 열려 '간다놀이' 와 '자기소개' , '장기자랑' 등을 통해 선후배들이 얼굴도 익히고 캠퍼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3월 9일(금)~10일(토) 경남 통영일대로 떠난 춘계답사 겸 신입생환영회는 통영충렬사와 세병관 등 통영일대의 문화 유적지를 답사했고, 저녁에는 환영회를 겸한 선후배, 교수간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한해의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었다.

언어정보학과

언어정보학과에서는 1월 18일(수)~20일(금) 경남 거창군 금원산 자연휴양림으로 겨울 산장학교를 다녀왔다. 산장학교는 졸업한 동문들과 함께 매년 겨울 2박3일간 전국의 명산을 찾아 학과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로서 올해는 학과교수 2명과 재학생 40여명이 참가하였다. 2월 9일(목) 대학원세미나에서는 석·박사과정생 각각 5명이 소논문 및 학위논문 주제발표를 하고 학술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한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였다. 2월 10일(금)~11일(토)에는 「매체와 언어」 라는 주제로 동 학과와 우리말학회·한민족어문학회가 공동개최한 전국학술발표대회가 인문관에서 열려 첫날은 기획 강연, 둘째 날은 대중매체에 관한 개인발표가 이루어졌다. 2월 25일(토) 언어정보학과가 주관한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보완교육 음성장애 세미나가 본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3월 16일(금)~17일(토) 이틀간은 학과교수 3명과 재학생 60여명이 경남 밀양 자연풍경펜션에서 신입생환영회를 가졌다.

사학과

사학과는 2월 13일(월)~14일(화)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학사일정, 학과교수소개, 수강지도 등 대학에 첫걸음을 딛는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월 17일(금) 졸업식에서는 석사 3명, 학부 17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2월 21일(화) 효원사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고대사 속의 낙동강」 이라는 주제의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3월 16일(금)~17일(토)의 신입생복학생 환영회와 아울러 3월 20일(화)~23일(금)에는 춘계정기답사 차 서울경기지역을 돌아보며 수도권의 역사유적을 공부하고 선·후배, 동기간의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철학과

철학과는 2월 23일(목)~26일(일) 인문관 및 함지골수련원에서 학부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신입생 예비대학을 열었으며, 3월 16일(금)~17일(토)에는 산성 솔밭공원에서 교수와 학생 50여명이 참석한 학부 신입생·복학생·편입생 환영회가 있었다. 3월 26일(월)에는 성균관대학교의 박정하 교수(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사무총장)를 강사로 초빙하여 「2012학년도 학부 논술교육인증과정 설명회」를 가졌으며, 3월 30일(금)의 대학원 연구논문 발표회에서는 5명의 대학원생이 논문발표를 하였다.

고고학과

고고학과에서는 1월부터 2월까지 부산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학부생 8명이 현장실습을 하였다. 2월 1일(수)~3일(금)에는 교수와 대학원생 29명이 제주도일대로 대학원답사를 떠나 제주시 일대의 주요 유적(고산리 선사 유적, 용담동 고인돌, 곽지패총 등) 및 국립제주박물관을 답사하였다. 2월 17일(금)의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2명, 석사 8명, 학사 12명이 졸업을 하였다. 3월 9일(금)~10일(토) 산성에서는 개강총회 및 신입생·복학생 환영회가 열려 교수와 학부 및 대학원생이 한 자리에 모여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하였다. 3월 27일(화)~29일(목)에는 전라도일대로 춘계답사를 떠나 전라도의 주요 유적 및 박물관을 돌아보았다.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에서는 2월 13일(월)과 14일(화), 16일(목) 사흘에 걸쳐 「서발턴, 그리고 민족 '이후' 」 이라는 제하의 비평/문화이론학교를 개최했다(강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이광수, 성균관대학교 안준범, 고려대학교 조규형). 2월 27일(월)에는 해운대 세계시민사회센터와 공동으로 「해운대 세계시민사회 가능성과 그 조건들–해운대, 세계시민 그리고 인문학」 을 주제로 한 '인문학으로 열어가는 세계시민사회 포

학과/연구소 소식

럼' 을 개최하였다. 동연구소의 연례학술발표회(24~26차)는 '자아와 타자' , '다원성' , '문화 횡단' , '소통' 등을 화두로 1월에서 3월까지 매달 진행되었으며, 3월 15일(목)에는 연속기획특강의 일환으로 부산교육대의 전진성 교수가 「도시, 트라우마, 숭고-공간의 문화사 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라는 제하의 강의를 했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신지은 HK교수를 신규 발령하고, 올 3월 1일(목)부터 향후 1년간 Nikita Dhawan(독일, 프랑크푸루트대학)과 Castro Vareal(독일, 앨리스살로몬대학)을 객원연구원으로 초빙했다. 동연구소의 학술심포지엄 행사로서, 오사카시립대학 초량왜관사 연구팀과 공동주최한 「同/異로서의 草梁倭館」 (1월28일[토]), 오사카시립대학 도시문화연구센터와 공동주최한 「도시 이주민과 공간변형」 (2월9일[목]) 이 마련되었으며, 부산시내 도서관들과 공동주최하여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 시민강좌인 '열린 인문아카데미' , '시민아카데미' 도 꾸준히 계속될 예정이다.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연구소에서 한문번역 능력의 집중적인 교육을 위해 열고 있는 [고전번역학교]가 3기를 맞이하여 2월의 3주간은 허호구(단국대) 선생의 「心經강의」와 김철범 선생의 「麗韓九家文抄」 , 이상필 선생의 「남명한시 선독」으로 마련되었다. 겨울방학 동안의 제10회 밀양고전인문아카데미에서는 교사, 청소년 및 일반시민들이 함께 모여 「동양적 사유의 세 국면, 유(儒)·불(佛)·도(道)의 세계」라는 주제로 동양고전 강좌를, 「옛이야기로 서포 김만중을 정심(精深)하게 읽다」라는 주제로 우리고전 강좌를 진행하였다. 한편 지난해 여름 기획된 점필재연구소의 해외인문고전강좌의 두 번째 강좌가 「세 가지 빛깔로 엮은 선인들의 삶과 생각」이라는 주제로 3월9일(금) 중국 무석에서, 10일(금)에는 상해에서 개최되었다.

동문 소식

안태호 동문, 2012공룡세계엑스포 홍보대사 위촉

지난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와 경상남도 고성군상공협의회는 1월 6일 상해한국상회 열린 공간에서 상호 우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체결식 후 조직위에서는 안태호 재중국한국인회 부회장(철학 74)과 박현순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회장을 2012공룡세계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배재정 동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

배재정(영문 86) 동문이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배 동문은 부산일보 퇴직기자로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에 재학 중이다.

부산문화재단과 복천박물관 공간기부 협약

부산문화재단(대표 남송우)(국문 70)과 복천박물관(관장 하인수)은 2월 13일 복천박물관의 강의실 공간을 1년간 부산문화재단에 무상 기부하는 내용의 공간 기부 협약식을 가졌다.

명예퇴직 교수

지난 2월 29일자로 불어불문학과의 강수영 교수가 명예퇴직을 하였다.

| **강수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불어불문학과에서 석사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불문과/중등교육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본교 불어불문과에 재직하며 다수의 논문과 연구서를 출판, 발표하여 프랑스어학을 소개하고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부산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의 연구원과 운영위원을 거쳐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의 이사를 역임했다. 주요논문으로는 「불어의 "(탈)비음화현상 연구" 」(언어연구, 1990),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수업에서 문법교육의 역할」(Foreign Languages Education, 1998), 「변이형과 교육적 규범설정—프랑스어 의문문을 중심으로」(프랑스문화예술연구, 2010) 등 다수가 있다.

교수 연구년 및 국외파견

국외파견

최규수(국어국문학과) | 중국 청도이공대학, 1년((2012.2.20~)
인성기(독어독문학과) |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1년(2012.3.1~)
주광순(철학과) | 독일 퀼른대학, 1년(2012.1.15~)

국내파견

정출헌(한문학과) | 한국고전번역원, 1년(2012.1.1~)

연구년 A

윤애선(불어불문학과) | 부산, 1년(2012.3.1.~2013.2.28)
양은경(고고학과) | 미국 하버드 옌칭 연구소, 1년(2011.9.1~)

연구년 B

조태흠(국어국문학과) | 중국 상해공상외국어직업대학
1년(2012.2.20~)
고현철(국어국문학과) | 1년(2012.3.1~)
김임숙(일어일문학과) | 1년(2011.9.1~)
김인택(언어정보학과) | 1년(2012.3.1~)

교수동정단신

| **권경근** 교수(국어국문학과)가 3월 1일자로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협동과정" 주임교수로 임명되었으며, 4월 1일자로 출판부장으로 임명되었다.

| **김려실** 교수(국어국문학과)는 2월 19일(일)~24일(금) 에히메대학에서 학술발표를 하고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자료를 수집하러 일본에 다녀왔다.

| **한태문** 교수(국어국문학과)는 2월 1(수)~2(목) 부산대와 큐슈대의 공동강의 수업을 협의하러 일본에 다녀왔으며, 2월 29(수)~3월 1일(목)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과 조선통신사 관련 유적지 답사 및 자료 수집 차 재차 도일했다.

| **남덕현** 교수(중어중문학과)는 2월 9(목)~13(월) 하남성 및 산동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인 한국어 연수생의 모집지역 다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중국에 다녀왔으며, 3월 16(금)~20일(화) 하남성의 국제 교육박람회 참가 및 북경 연합대학 방문 차 다시 중국에 다녀왔다. 남 교수는 또한 1월 1일자로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 **조강희** 교수(일어일문학과)는 1월 25일(수)~27(금) 2011학년도 2학기 일본규슈대학 공동강의 수업담당 차, 3월 29(목)~31(일) 기초연구지원 인문사회지원사업 수행, 자료조사 및 수집 차 일본에 다녀왔다.

| **배만호** 교수(영어영문학과) 3월 15일자로 재단법인 부산대학교발전기금 이사로 선임되었다.

| **안동환** 교수(영어영문학과)는 1월 27(금)~2월 11일(토) 영상번역관련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BK21 영상산업 번역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연수생을 인솔하여 호주에 다녀왔다.

| **윤일환** 교수(영어영문학과)는 1월 19일(목)~2월 28(화)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에 선정된 "〈켈트족의 황혼〉과 예이츠의 문화민족주의"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수집하고 관련 교수와 토의를 하였다.

| **전지현** 교수(영어영문학과)가 3월 1자로 국제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 **박형섭** 교수(불어불문학과)는 2월 8일(수)~17(금) 멕시코에서 열린 '2012 중앙아메리카 국제 문학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였다.

| **전광호** 교수(불어불문학과), **손영삼** 교수(철학과), **김두철** 교수(고고학과)가 3월 1일자로 교수승진을, **김려실** 교수(국어국문학과)가 부교수승진을 하였다.

| **허영재** 교수(독어독문학과)가 1월 9일자로 기획처장에 임명되었다.

| **김성진** 교수(한문학과)와 **윤일환** 교수(영어영문학과)가 3월 1일자로 각각 인문대학 학장과 부학장으로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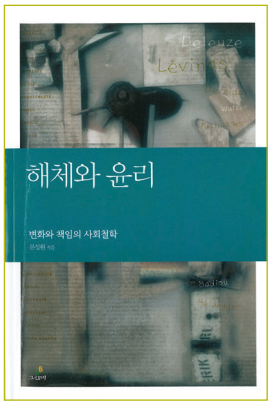
교수동정/신간소개

| **이준규** 교수(한문학과)가 2월 1일자로 입학관리부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 **김기섭** 교수(사학과)는 부산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2월 9일(금) 10.16기념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 **이종봉** 교수(사학과)가 1월 9자로 교무부처장으로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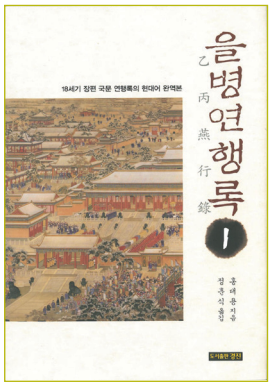
신간소개



『해체와 윤리—변화와 책임의 사회철학』

문성원 지음, 서울: 그린비, 2012

철학과 문성원 교수는 『해체와 윤리—변화와 책임의 사회철학』을 출간했다. 이 책은 네 가지 큰 주제를 다룬다. 〈타자와 책임〉, 〈새로움과 윤리〉, 〈표현과 욕망〉, 〈진리와 정의〉가 그것이다. 이 책은 이들 주제를 들뢰즈와 레비나스의 입장과 각각 견주어 탐구한다. 들뢰즈는 이 책에서 어떤 대안적 기획의 제시자로서보다는 기성질서를 해체하고 변화의 유동성을 확보하려 노력한 철학자로 정립한다. 이 책은 이런 이유에서 들뢰즈의 내재적인 접근보다는 레비나스의 초월론적인 접근이 윤리의 문제를 다루는데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모아 놓은 글들은 특정한 사상을 충실히 설명하기 보다는 나름의 문제의식과 주제 아래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각각의 글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고 발표한 것이지만 가까운 주제를 논하고 있는 것끼리 모아놓아 놓은 것이기에 읽을 때 관심이 가는 주제에 따라 어느 꼭지를 먼저 선택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주된 비판은 서구의 주체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주체의 자기실현으로 역사와 문명을 해석하는 방식을 향한다. 레비나스와 들뢰즈, 데라다와 바디우 등 사유의 거장에 흐르고 있는 바깥의 철학과 타자성의 윤리를 다루면서 이 책은 타자에 대한 책임이 나의 사유에 앞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레비나스의 윤리가 신자유주의의 현실 속에서 선명한 저항의 장소나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견지한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타자에 대한 응답과 책임 속에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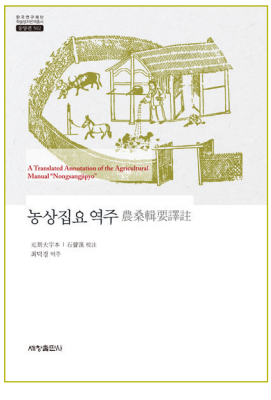


『을병연행록』

홍대용 지음, 정훈식 옮김,

서울: 도서출판 경진, 2012

국어국문학과 정훈식 전임대우강사가 18세기 국문연행록인 『을병연행록』을 현대어로 완역하여 펴냈다. 이 책은 홍대용(1731~1783)이 1765년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의 연행 체험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북경의 문물, 명승지, 풍속 등에 대하여 매우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책에는 담헌이 과거보러 북경에 올라온 항주의 세 선비와 만나 필담을 나누고 천애지기를 맺은 일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는데, 이는 청대 한·중 지식인 교류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로 평가된다. 그간 일부분만 현대어로 옮긴 책이 간행된 적이 있으나 완역본 간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상집요 역주』

최덕경 역주 및 감수,

서울: 세창출판사, 2012

『농상집요 역주』는 원나라 세조 10년(1273년), 국가가 주도하여 편찬한 중국 최초의 농서인<농상집요>를 사학과의 최덕경 교수가 번역하고 교석한 책이다. 본서는 지난 수천년의 농업을 집대성한 것으로 농업에 대한 교훈과 선현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각종 곡물과 채소 및 양잠의 재배방식과 수목, 약초재배와 가축사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업이론과 배양법을 소개하여, 전통농업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 책은 1348년 고려 충정왕 때 국내에 처음 들어와 공민왕 21년에 다시 간행되기도 하였으며, 조선 후기까지 국내 농업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여러 농서를 편찬할 때 활용되기도 하였다. 농업은 전통시대 경제의 토대였지만 오늘날에서 농업 종사자의 수가 줄어들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면서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우리 먹거리를 해결하는 생명산업이며,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서는 전략산업이며, 생태산업이고 미래산업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본서는 농업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이나 연구자를 위해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에 일일이 역자주를 달아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화학비료나 농약에 오염되고 유전자 조작 농산품이 늘어나면서 유기농업의 중요성과 전통농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책이 유기농업을 부활시켜 우리의 건강한 생명과 환경을 책임지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